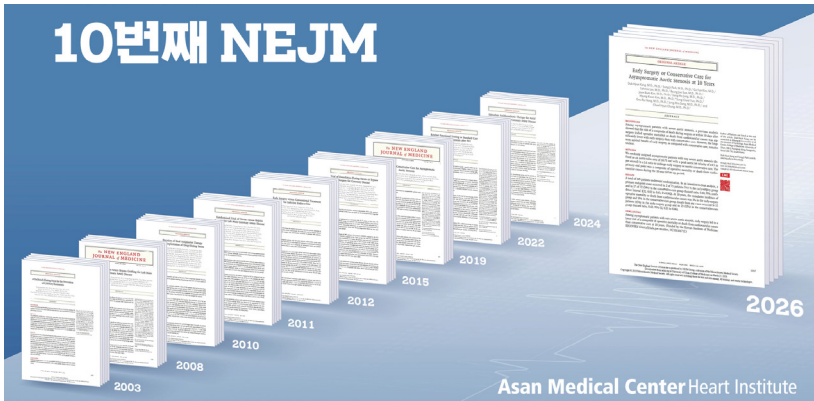


심장병원 의료진, 국내 첫 10번째 NEJM 논문 게재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이 NEJM에 게재한 논문.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10번째 논문을 게재했다.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는 무증상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조기 수술 효과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입증함으로써 2012년, 2019년에 이어 3번째 NEJM 논문을 게재하는 쾌거를 올렸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은 2003년 약물방출스텐트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국내 최초 NEJM에 논문을 게재한 박승정 교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부정맥질환 등을 주제로 총 10편의 논문을 NEJM에 게재했다. 이는 단일 기관으로서 국내 처음이자 최다

기록으로, 국내 기관 연구자가 주저자로 게재한 NEJM 논문의 30%에 해당한다.

‘피지컬 AI’ 국산 1호 심혈관 중재술 로봇 임상 적용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안정민 교수가 3월 27일 심혈관조영실에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 ‘에이비아(AVIAR)’를 이용해 시술을 하고 있다.

국산 1호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 ‘에이비아(AVIAR)’가 3월 27일 임상 현장에 첫 투입되어 시술에 성공했다. 2019년 서울아산병원의 의료로봇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된 에이비아는 2021년 식약처 품목승인을 획득한 뒤 실증임상연구에 활용되어 왔으며, 2024년 12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지역 1년 만에 실제 임상 현장에 투입됐다. 이번 에이비아의 임상 적용은 수입 로봇 의존도가 높았던 의료로봇 분야에서 국산 기술의 임상적 자립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암재활·림프계 질환 국제 심포지엄 개최



3월 13일 열린 제1회 국제암재활심포지엄 참석자들.

암 환자의 치료 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암 재활과 림프계 질환의 최신 지견 및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 행사가 개최됐다. 서울아산병원은 3월 13일 ‘제1회 국제암재활심포지엄(Asan International Cancer Rehabilitation Symposium)’과 3월 20일 ‘제1회 국제림프계질환포럼(Asan International Lymphatic Forum)’을 잇달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두 행사에는 총 4개국 4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암 치료 전 주기에서 재활과 림프계 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